

'가정의 달' 더욱 바쁜 불음가수 김무한씨

불교행사장 돌며 '부모은중노래' 공양

최근 '다시부르는 찬불가' 앨범 발표

영화 '강원도의 힘'의 주제곡인 '무상초'를 불렀던 불음가수 김무한(40)씨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각 불교 행사에서 자작곡 '부모은중노래'를 부르며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최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보현행원' 등 널리 알려진 찬불가 베스트 12곡을 키보드,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진 반주로 노래한 앨범 '다시 부르는 찬불가'를 발표했다.

애절한 김씨 특유의 창법에 실려 키보드, 신디사이저 등의 반주가 현대적이고 색다른 맛을 주어 특히 청소년층에 인기를 얻고 있다. 김씨가 불음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93년, 우연히 들른 강남 불은사 법당에서 장애인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부터다. 이때부터 <금강경>을 비롯 <화엄경> 등 경전 공부를 하며 대중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곡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

을 거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자작곡 앨범 '마음으로 가는 길'. 이 앨범에는 부모님의 걸림 없는 무주상보시를 노래로 옮긴 '부모은중노래' '연화 발원' 등이 들어 있으며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작곡 불음가요 12곡이 담겨져 있다. 바쁜 음악 활동중에도 한달에 두 번씩은 꼭 군법당을 순회하며 찬불가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김무한씨. "부처님의 오묘한 진리를 대중적인 음악으로 해석한 앨범 '다



◇ 불교행사장에서 자작곡 '부모은중노래'를 부르는 김무한씨.

시...'를 통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보인 김무한씨는 오늘도 기타를 둘러 메고 불교 행사장을 찾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춤과 노래로 봉축' 15일 동화사음악회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아의 음악회가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다. 동화사와 대구MBC가 15일 오후 7시 통일대불 앞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 음악으로 형상화한 24개 작품을 공연한다.

대중들 속으로 다가가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아의 음악회에서 이어주교수는 '비탈강생'을 주제로 새로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50여명으로 구성된 불국사 어린이합창단이 '앞으로 앞으로' '성터에서' 등을 합창한다.

이외에도 동화사 사중스님 60여명이 '저녁예불'을 재현하고, 법현스님이 '열가사람의 일사' '바하 아리오소' 등을 첼로로 연주한다. 또 코오레, 이선화등 대중가수들도 대거 출연한다. 이번 음악회 연주는 대구 불교방송 예술단이 맡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선사와 선화의 만남

진옥스님 시에 김양수씨 그림 12~18일 백상기념관서 전시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장 진옥스님이 최근 수행하면서 틈틈히 쓴 시 48편을 모아 <그대, 그대는 낯아서 놀습니다>를 펴냈다. 이 시들의 내용에 맞게 불자화가 김양수씨가 그림을 그린 시화전 '그대, 그대는 낯아서 놀습니다'가 백상기념관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진옥스님이 수행과 포교 생활중 틈틈히 남긴 삶의 단상들에 김양수씨는 먹의 농담과 간결하면서도 여유 있는 선을 통해 그 시가 상징하는 선적인 세계를 잔잔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 시화전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외롭고 힘들게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 마련됐다. (02)724-2243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저 숲일 사이로 흐르는 솔바람 소리를 듣는다. 김양수작 '솔바람'.

양산 천불사서 신라유물 발견

금동여래입상 2점 등

경남 양산 천불사에서 사료 가치가 높은 문화유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이곳에 대한 문화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천불사 대웅전 침하보강 공사를 하던중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금동여래입상 2점과 나한두상 2점이 삼국시대 유물인 단경대 향아리 속에 담겨져 발견됐다는 것.

문화재관리국은 불상의 경우 좌대와 후광이 없고 나한상도 몸통이 파손돼 원형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신라시대 불교문화의 연 구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인정했다. 특히 마을주민들도 '월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구전으로만 전해오고 있는 고찰터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 지난 86년 대웅전에서 사리탑 파편과 탑 받침대가 나왔고 지난 86년과 올 2월에도 대웅전 뒤 밭에서 자기 기와와 화본 등이 잇따라 솔바람 천불사축이 유물을 경내에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국립김해박물관과 천불사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최초 찬불가 LP CD로 제작 배포

최초의 찬불가 레코드판이 CD로 제작과 배포된다.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지난 77년 처음 제작된 찬불가 레코드판을 CD로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 레코드판에는 서정 주시인이 작사하고 김동진씨가 작곡한 '불교도의 노래'를 비롯해 김영호씨가 작곡하고 전국신도회가 작사한 '연등'과 '제등행진곡' 등 10곡이 수록돼 있다.

"거조암 나한님 친견하세요"

영천시, 관광 8선 선정 관광객 유치 나서

은해사, 거조암, 만불사 등이 영천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선정됐다. 경북 영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문화재와 명소 8곳을 영천관광 8선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선정한 '영천관광 8선'은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국내 최대 법당 만불사 △보현사 △국내 최대 법당 만불사 △보현사 천문대 △포은 정공주를 모신 일고서원 △폭포 등 경관이 뛰어난 치산관광지 △시원한 드라이브코스 영천댐 △소원성취를 점치는 복안

돌할매 등이다. 이들 8곳을 연결한 관광코스는 일고서원에서 거조암, 은해사 코스와 일고서원에서 만불사, 돌할매 코스 두 종류. 시는 관광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거조암 나한을 소재로한 시 캐릭터도 만들 계획이다. 영천시 문화관광과 김동현씨는 "영천시는 유서깊은 불교유산이 많은 지역"이라며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불교연극 '등신불'

성공적 공연

열흘간 매회 3백여명 관람 대사생략 내면 시각화 '호평'

김동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등신불'을 연극으로 보는 것은 또다른 감동이다. 4월30일부터 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매회 3백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등신불'(구히서작, 이승규연출)은 일단 인간의 내면 세계를 시각화해 상징적으로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우선 소신공양이란 특이한 삶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의 이력과 그것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욕망과 업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간결한 시적 표현으로 구성해 사실적인 극적 효과를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또 대사가 거의 생략되고 많은 장면이 마임과 무용 동작으로 처리되는 등 관객들에게 생각할 부분을 많이 주어 마치 선(禪)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막과 막 사이나 극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마다 바라춤, 남사당놀이, 인형놀이 등을 삼입 한 것도 연극의 시각화를 강화해 흥미를 더욱 끈 요인이 됐다. 또 환등기와 비디오를 이용해 무대 배경을 영상적으로 처리한 것과 이야기속에서 이야기가 계속 중첩돼 과거의 사건 전개가 두드러진 액자소설의 원작을 각색해 주인공들의 시간상 전개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했다는 점은 단순한 구성의 벽을 뛰어 넘게 해 주었다.

연극 '등신불'은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우리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취지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소설속에 녹아있는 불교사상과 극적인 효과를 무대상에서 최대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 작품은 전국체전 인천 유치 및 도시철도 개통 축하 공연 일환으로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재공연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22일 결식아동돕기 길상음악회

맑고 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은 부처님오신날인 22일 길상사에서 결식아동과 함께 하는 길상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 1부는 노영심씨가 관하는 환경음악회로, 2부는 북의 달인 김태환씨와 소리의 달인 장사익씨가 한판 어우러져 멋진 화음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02)3672-5945

서울중앙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서울중앙관현악단은 14·15일 양일간 KBS홀과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천년의 소리를 찾아'를 주제로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작곡가 이인원씨가 지휘할 이번 공연 1부에서는 서양 고전곡을 극악 관현악으로 편곡한 '꽃다의 노래(정부기 작곡)'가 연주된다. 이어 2부에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불교무용음악 '구도(이인원 작곡)'가 공연된다.

김달진문학상에 최정례·이승원씨

제10회 김달진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최정례(44)씨와 평론가 이승원(44) 서울대학교수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최씨의 시 '3분 자물쇠차장'에서 '이씨의 평론 '서정시의 위력과 광휘', 시상식은 6월 6일이며 장소는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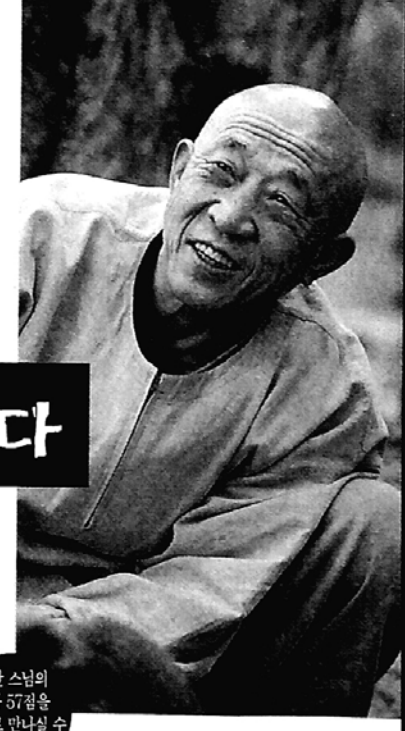
해인사 구광루서 '이영수 서각전'

나무, 출판, 기와 등 우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에 화두를 담은 '시종 이영수 서각전'이 17일까지 합천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임제선사의 '살불살조' '본래면목',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등 선사들의 화두들이 불자들을 서각으로 맞이한다.

즐거운 책임기, 생각하는 책임기 - 늘푸른소나무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의 그림이 있는 에세이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수안스님의 작품 57점을 컬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인생이야기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는 스님...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만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스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이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국문 254면 6,500원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도 평생을 만족하며 살아온 지체 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외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숨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바닷속의 물고기, 풀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돌아나는 숙 한 뿌리...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로 하여금 깊은 심상을 그리도록 한 것뿐이다. 이제 나는 그들로부터 받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글과 그림을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저자의 말 중에서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출판기념회 및 저자서인회
· 5월 19일(수) · 오후 6시 · 출판문화회관 강당
(독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1-3 남산빌딩 2층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